

# 오피니언

## 데스크 시각

박치경



3월이다. 꽃샘 추위 통과예는 거처야지만 3월부터는 봄이다. 봄맞이에 가슴 설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지난겨울 촉한의 터널이 유난히 길었던 탓에 올 봄은 더 반갑다.

3월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특별하다. 학생들은 새 친구, 새 담임을 만나 하루하루가 새롭다. 짐은 무겁지만 학부모들도 새 학기에 자녀가 몸과 마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로 마음 부풀다.

광주·전남의 학교들이 맞은 이번 3월은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본격적인 교육 실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 능력 발휘가 관건

장학관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말 자신의 최측근을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장학관)에 임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특

히 새 직책을 맡은 이는 평교사 출신으로 장학관 보직에 임명된 첫 사례여서 최고의 관심을 끌었다.

전남도교육청도 그동안 전교조 출신 교사로로 이뤄진 비공식 기구이자, 한시기

## 학교에도 봄은 오는가

구인 전남교육발전기화단에서 일했던 일부 전교조 출신 인사를 재배치함으로써 인심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두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 실현을 위한 '객토'(客土)를 마련 셈이다.

직선 교육감들이 그들의 철학과 '노선'을 견지할 직책에 자기 사람을 앉힌 것에 대해 시비할 생각은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전까지의 그대로 보면 과격인 만큼 중요 포스트들이 직분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곤란하다.

평교사 출신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편견이다. 다만, 차곡 차곡 단계를 밟아온 사람과 비교해 다양한 경험부족이 핸디캡이 될 것이라는 걱정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측근'들은 적어도 이전 교육감 시대의 동일 업무 담당자보다 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려워진다. 이렇

들에게 의식교육을 강조할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구습과 낡은 관행타파는 대한 영이지만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상에서 벗어나면 곤란하다는 주문이다.

여기에서 자신을 '의식의 통괄'에 갖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권유도 있다.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면 현실의 족쇄에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교육정치' 하지 말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보충학습 규제를 강화해 학원들만 좋은 일 만들었다가 상당 부분 되돌린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부러 보수적인 방법을 수용하는 '실용교육'의 용기도 필요하다. 올바르게 실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방법론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실패할 만큼 지역 학부모들의 속이 좁지 않다.

새 학기 의욕적으로 출발한 광주·전남 학교에 인성과 실력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봄'은 올 것인가? 학부모와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기고

박홍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는 15일까지 '후드트바사'전이 열린다. 그는 '건축치료사', '색의미술사'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다. 요즘 흔히 접하는 옥상정원을 일찍이 주장했던 분이다. 그는 건물옥상에 나무와 식물을 심어 인간의 주거 공간을 자연의 모습으로 남기려 했고, "인간을 보호하는 피부는 여러 종류인데 집은 제3의 피부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드트바사에게, 인간의 피부는 5겹이다. 제1의 피부는 나체, 즉 우리 몸

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제4의 피부인 마을과 도시환경을 행정기관에 모두 맡겨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의 주인과 그 도시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제1의 피부인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 의 하나로, '도시 탐사단', '도시디자인 진단팀'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 보기에 혼란스런 곳, 가치가 있으나 그 가치를 잊고 있는 곳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자체피부이고, 제2의 피부는 의복이며, 제3의 피부는 주거공간인 집이다. 제4의 피부는 마을과 도시와 국가의 사회적 환경이며, 제5의 피부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안식처를 주는 대지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구 생태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피부와 의복, 주거공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환경과 지구생태계를 우리네 제4, 제5의 피부로 생각하는 그의 철학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동안 별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게 무너지면 '주거 공간, 의복, 내 몸은 어찌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분들에게 "요선 돌아다니면 건물만 보인다"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에, 건물과 그 환경에 눈이 가는 것이다. 관심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게 한다. 건물의 형태가 보이고, 색이 보이고, 재료가 보이고, 외부공간과 내부 실 등의 구성이 눈에 보인다. 또한 주변 환경을 걱정하고, 도시를 이야기한다.

'무언가' 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실천의 방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은 '관심'이다. 그리하면 이전엔 옆에 있어

이 많다. 이런 주변의 여러 지역을 시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주인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행정 일반도의 도시환경디자인이 아닌 '시민참여' 디자인행정이라는 데 관심과 의미를 가져본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쓰기 편해야 한다.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신부 등 사회적 활동 약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한다. 둘째, 만들기 쉬어야한다. 만들기 쉽고, 유지하기 용이하며, 가격경쟁력 또한 있어야 한다. 셋째, 보기 좋아야 한다. 쓰기 좋고, 만들기 쉽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좋은 디자인이며, 지속가능성을 가진다.

"우리가 혼자서 꿈을 꾸면 오로지 꿈에 그치지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제4의 피부인 우리 주변 환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가, 영역을 받은 전문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이 되길 바란다.

(건축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일고나 사진,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에메일 opinion@kwangju.co.kr

동장군의 칼바람이 무더지고, 어느 고을에서 봄의 전령인 매화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들던 날,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에 동참해 주실 수 없겠는가'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나는 3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해 체험코너를 운영했다. 연례행사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바빠진 걸 보니 소방은 매화꽃보다 먼저 봄을 준비했구나 보다.

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결과, 소방관들과 제법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덧 길을 가다가 들리는 소방차의 소리에 무

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장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를 시민에게 쓰워주고 본인은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든 장비가 최소한의 수량만 지급된 데 원인이었다.

'다시 쓰는 소방관의 기도',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보도되어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지만, 정작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줄 구체적인 방안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장비가 부족하다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교편이 어렵다고 한다.

화재 진압 도중 당한 화상치료는 3년만 지원받고, 그나마도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인명을 구조하다가 당한 부상은 자비로 치료하는 일도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또한 방송의 기획 의도는 소방의 상황을 알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었을 텐데,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책임 있는 부서 관계자들의 인터넷조차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응답이 있다는 데, 이번 방송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기도'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인정하기 싫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국민이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때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와 주는 소방관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대 미술대학 겸임교수)

## 아이들 집 크기 비교해서 친구 사귀다니 씁쓸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사는 집의 평수를 비교해서 친구를 사귀다니 이는 얼마나 서글프고 충격적인 일일까?

얼마 전 초등학교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다. 컴퓨터 앞에 몰방졸망 모여앉아 게임을 하기에 과자 좀 가져다주려고 방에 들어가다가 좀 언짢은 이야기를 들었다. 놀러온 아이 친구 하나가 누군가에게 "야, 너희 집은 몇 평이야?"라고 묻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응, 33평"이라고 했다. 내가 과일을 들고 들어갔는데도 아이들은 거리낌없이 아파트 평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중 한 아이가 시무룩한 말투로 "응, 우리집은 24평인데..."라며 말을 흐렸다.

못들은 체 하고 그 말을 나왔지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졌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우리 애를 불러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며 꾸짖을 주었더니 요즘 친구간에 자기 집이 좁으면 아예 초대도 안 하고 집이 넓은 아이들은 친구들을 여러 초대해서 노는 게 유행이라는 말까지 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장래 희망에 비싸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라고 쓰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듣고 있는 친구와 여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악성 전염병으로 퍼져 동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부모의 몫이다. 부모들이 먼저 돈과 부동산을 삶의 가치와 척도로 삼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다.

▲송회권·광주시 북구 동림동

## 시설

## 광주·전남 광역협의회 '의례적 만남' 안돼야

광주와 전남도가 5년 만에 광역행정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오는 10일 광주시청에서 김은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이 만나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한다.

우리는 양 시·도의 만남을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등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광역협의회에서 다뤄질 안건으로 광주시는 무안공항 활성화,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등 13건을, 전남도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 11건을 각각 제안했다. 안건 하나하나가 광주·전남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다. 이번 광역협의회가 형식이 그치지 않고 상생발전 방안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만남'이 돼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은 한 뿌리다. 전남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광주 경기도는 전체의

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광주 발전이 시들하면 전남은 낙후의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역사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한 몸인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양 시·도 간의 만남 자체가 없었던 것이 증명하고 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문제만 보더라도 광주·전남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소지역주의에 사로 잡혀 티격태격하고 있다. 시·도가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광주·전남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광주와 전남도는 앞으로 더 자주 만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힘을 합해도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힘에 부치는 게 냉혹한 현실이지 않는가. 10일의 광역협의회가 상생협력을 통한 광주·전남의 동반성장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지자체 방만한 예산 운용, 해도 너무한다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보조금을 허술하게 교부·집행하는가 하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폭포·여수·나주·무안·고흥 등 5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507건의 위반·부당행위를 적발하고, 113억여 원을 추징·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 338명 대해서는 징계 및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 국·도비 44억을 투입해 유람선을 건조했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을 하지 않아 매월 유지·관리비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도로개설 등 5건에 1억7900만 원 용역비를 들였지만 1~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제 돈이면 이렇게 예산을 허투루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나주시와 고흥군은 지난 2008년 개정

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해 각각 4억6900만 원과 9700만 원의 지방세 손실을 초래했다고 한다. 행정이 이 모양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8~20%대에 머물러 있고, 고공근로 공무원 임금조차 줄 수 없는 등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형편이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이 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직자로서 양식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행정이 곪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비롯된다. 이 같은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지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엄중하지 않고 있다. 제 돈이면 이렇게 예산을 허투루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 無等鼓

16~18세기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왕실에서는 왕이 공식적으로 정부(情婦)를 두는 제도가 유행했다. 메트레상티트르(maitresse en titre)라고 불리는 '왕의 여자'들은 말이 정부였지, 실제로는 국부총리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들에게는 작위와 연금, 명예 그리고 높은 지위가 보장됐으며, 그 대가로 왕에 대한 성적의무와 예술분야 지원, 외국대사 접견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 왕의 정부자리는 그만큼 인기가 높아, 평생 '참녀'소리를 듣긴 했지만 신분 높은 가문의 여자들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영국 찰스 2세는 특이하게도 빈민가 출신 매춘부인



메트레상티트르

이라고 일축할 만큼 당당한 여자이기도 했다. 연인이었던 찰스 2세가 죽자 수많은 귀족이 아름다운 벨 그윈에게 구혼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슬픈 얼굴로 "사슴이 누웠던 자리에 개를 놓을 수 없잖아"라고 거부하며 37세로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켰다고 한다.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엔 모로코 출신으로 '루비'로 불리는 18세의 나이트 클럽 댄서가 문제가 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총격이지만, 총리가 그녀에게 줬다는 7600만 원짜리 롤렉스 손목시계와 2700만 원짜리 여우털 목도리 등 무려 3

억6000만 원대의 선물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 물론 모로코 소녀 '루비'가 메트레상티트르는 아니지만, 현대의 왕이나 다른 정부였던 바바라 캐슬마인(Babara Castlemaine)이 자신을 '천한 태생'이라며 무시하자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 법"

/홍행기 정경부 차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